

# 1950~60년대의 재즈의 흐름-마일즈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김형천\*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hyung\_chun@yahoo.com

## The Main Stream of 1950~60's Jazz-Case from Miles Davis

Hyoeng Chun Kim\*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 요 약

재즈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조금 넘는 상태에서 많은 재즈 뮤지션 중 Miles Davis라는 한 인물이 걸어 왔던 음악적 발자취를 재확인하며 Cool Jazz와 Free Jazz등 현대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시 흐름과 그 안에서 Miles Davis의 위치를 재검토한 결과 기존의 일반적인 사실과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발견하고 그의 음악적 위치를 재즈의 큰 흐름 안에서 재조정하게 되었다. 당시 음악으로서는 획기적일 수밖에 없을 '모드 방식'의 접근과 재즈음악에서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축으로서의 Miles Davis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대 재즈에까지 연결되는 그의 음악적 성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Miles Davis를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기반을 제시 하고자 한다.

### 1. 서론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는 1925년 일리노이주(州) 엘턴에서 출생하였다. 처음에는 찰리 파커, 빌리 엑스타인의 악단에 있었으나, 1955년 5중주단을 결성해서 활동, 모던재즈 트럼펫의 제1인자가 되었던 인물로 미국의 재즈트럼펫 연주자겸 작곡가이다. 날카로운 표현이 독특하며, 1960년대 후반 신인상주의적 경향도 보였으며 쿨(cool)재즈의 창시자고, 전기악기의 음색에도 관심을 가져 새로운 방향을 탐구해 퓨전재즈의 길을 열었다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일즈 데이비스의 소개이다. 그렇지만 마일즈 데이비스의 재즈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않다.

우선 그의 첫 번째 큰 음악적 길잡이가 된 인물은 찰리 파커(Charlie Parker)이다. 어린 마일즈 데이비스와의 1년여 간의 동거에서 찰리 파커는 그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후 마일즈 데이비스는 베니 카터(Benny Carter)의 밴드에 참가하고 1947년 초에 찰리 파커가 편성한 캄보 밴드에서 1년 반 정도를 지낸 후 재즈 캄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일즈 데이비스 9 중주단을 만들게 된다.

여기까지가 마일즈 데이비스의 초기 모습이고 1950

년 전후를 통하여 사실상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른 각도로의 마일즈 데이비스와 쿨 재즈간의 해석과 함께 당시 하드 밥과 프리 재즈와의 관계를 마일즈 데이비스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마일즈 데이비스와 쿨 재즈(Cool Jazz)

쿨 재즈라는 말은 당시 존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지며 1950년으로 들어서면서 일종의 생활 감각으로 핫(hot)의 반대 개념으로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근거로는 당시 남성들의 아주 짧은 머리의 유행, 형광등의 탄생과 더불어 주광색의 파르스름한 빛이 선호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의 머리도 이전의 긴 머리 스타일에서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과 같은 시원한 단발머리를 본 따게 되며 스커트도 나팔 모양의 플레어 스커트가 유행했다. 이는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핫"에서 "쿨"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쿨"의 '서늘하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포함하여 모던(modern)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던재즈’의 이전 형태로의 모습이 바로 ‘쿨 재즈’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쿨 재즈가 시작 될 무렵 과연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마일즈 데이비스는 쿨 재즈의 효시였고 쿨(Cool)파인가?

역사적 명반으로 꼽는 「Birth of the Cool」이 마일즈 데이비스를 통해 처음 나왔을 때를 쿨 재즈의 시발점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는 잘못으로 보여진다. ‘쿨의 탄생’이라는 제목 또한 캐피탈 레코드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으로 사실상 「Birth of the Cool」보다는 조지 쉬어링 퀸텟(George Shearing Quintet)이나 레니 트리스타노(Lennie Tristano)와 리 코니츠(Lee Konitz)가 그 당시 연주한 것이 더 ‘쿨’에 가깝게 들린다.

## 2.2. 쿨 재즈(Cool Jazz)의 시발점은 레스터 영(Lester Young)으로부터

쿨의 창시를 마일즈 데이비스로 볼 수 없는 근거는 그 당시 유행하였던 콜맨 호킨스와 같이 강렬한 음색과 풍부하고 커다란 사운드의 연주에 상반되게 그저 덩덤하고 느리고 나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영(Lester Young)이 이미 마일즈 데이비스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흥연주의 진가를 외견적인 강력함으로 평가하려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레스터 영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되어 버리는데 레스터 영의 독창성을 이해한다면 그가 새로운 ‘휴식’과 ‘억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당시 재즈의 강렬함과 시끄러움을 몰아냈다고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매너리즘에 빠진 멜로디 연주 방식과 낡아빠지고 있던 리듬 섹션 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었던 당시에 현대에 들어도 경청하게 되는 레스터 영의 솔로 접근법은 재즈역사에서 일대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쿨 재즈가 스타일로서 당시 실재 했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며 실재 했다면 어떤 범위내의 것을 가리키는 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서늘한 사운드’라는 의미보다도 당시의 상황에 가장 근대적인 사운드로서 어필했던 것이 바로 쿨 재즈의 모태라고 본다면 그 효시는 마일즈 데이비스라기보다는 레스터 영부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그 시대에 재즈를 지배하던 사고방식이 음악적 소재는 찰리 파커로부터, 프레이징(Phrasing)은 레스터 영으로 부터라고 본다는 것이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캐피탈 밴드가 등장하고 레니 트리스타노가 발흥한 후 우디 허

맨(Woodrow Charles Herman)의 하드 사운드까지 어느 것 하나 레스터 영의 영향이 아닌 것 없다. 특히 마일즈 데이비스의 캐피탈 밴드는 쿨이 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가져다 준 9중주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운드 면에서 보면 거의 오케스트라화한 레스터 영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직후의 마일즈 데이비스의 음과 프레이징을 보면 실로 레스터 영의 테너 색소폰을 그대로 마일즈 데이비스의 트럼펫이 이식시켜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마일즈 데이비스가 쿨 재즈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음악적 본질로 보면 오히려 밥(Bop)에서 하드 밥(Hard Bop)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뮤지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50년대 전반의 재즈는 레스터 영의 사운드였던 것이고 쿨의 시작을 레스터 영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보여진다.

## 2.3. 마일즈 데이비스는 하드 밥(Hard Bop)과 프리 재즈(Free Jazz)의 뿌리

밥(Bop)이 등장 했을 때는 드럼 심벌 레가토로 옮겨간 정도였으나 하드 밥에서는 드러머가 관악기 연주자와 짝으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당시 마일즈 데이비스의 드러머였던 아트블랙키(Art Blakey)는 밥 적인 드러머라기보다는 하드 밥 드러머로 보야 타당하다. 그러나 마일즈 데이비스를 하드 밥의 선각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단지 쿨 재즈에서의 그의 명성이 너무나도 컸었던 탓에 어느 정도 가려진 일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 연구에서 마일즈 데이비스를 하드 밥의 효시로 보는 이유는 후년의 하드 밥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들의 상당수가 마일즈 데이비스의 사이드맨을 지낸 것을 들 수 있다. 아트 블랙키 (Art Blakey),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폴 챔버스(Paul Chambers)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백인들의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진 서부의 쿨 재즈 바람은 결국 동부 흑인들을 자극하여 재즈의 원조는 흑인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하드 밥이 탄생한 것인데 여기서 마일즈 데이비스는 서부의 쿨 재즈에서 기반과 그 시작을 알렸으며 동부의 하드 밥 연주자들의 연주 형태에서의 기초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50년대를 걸쳐 60년대로 진행되었는데 6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재즈계에 아주 새로운 양상이 하나 더 추가되기 시작한다. 마일즈 데이비스 캄보에서 탈퇴한 존 콜트레인과 오넷 콜맨(Ornette

317.  
MILES DAVIS

**NEFERTITI**

(Guitar)  
Soloist

[그림 1] Nefertiti 악보

Coleman)에 의해 프리 재즈의 가능성이 등장 하게 된 것이다. 60년대 프리재즈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선구자는 오넷 콜맨이지만 당시 재즈계에서의 그의 위치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인간 정도의 대접을 받았는데 오넷 콜맨의 실험정신을 알아본 사람이 마일즈 데이비스였던 것이다. 마일즈 데이비스는 기존의 코드 진행법과 코드분해 형식의 솔로연주에서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조성안에서의 틀에 박힌 끊임없는 연주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결책으로 마일즈 데이비스가 선택한 방법은 ‘모드 수법’에 있다. 결국 코드 진행이 주는 갑갑함을 멜로디의 강조에 중점을 두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악보1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마일즈 데이비스의 대표적인 모드 수법은 조성이 없으며 코드 진행 자체가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재즈형식을 따르지 않는 데 있다. 첫마디와 두 번째 마디에서 Major7코드로

#11이라는 특이한 텐션을 도입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메이저 조성을 피한 리디안 모드를 사용한 예이다. 이와 같은 예는 7,8,9번째 마디와 12,14 마디에서도 보여 진다. 장조 코드의 3도 음과의 불협화음으로 그 위치가 불안정한 11th 음을 반음 올림으로서 협화음화 시키고 멜로디와의 특이한 느낌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 재즈 코드진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라 가히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 3. 결론

재즈의 역사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와 있다. 재즈의 큰 흐름 중 마일즈 데이비스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시도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50~60년대 그의 행로를 다시 새겨 보면서 일반적으로 파악되어 왔던 마일즈 데이비스의 재즈에서의 위치를 다르게

해석 할 수 있었다. 즉, 쿨 재즈의 선구자는 확실하지만 그 창시는 마일즈 데이비스에게 쿨 재즈의 몸통을 구성 할 수 있게 해준 레스터 영(Lester Young)임을 확인 했으며 프리 재즈의 태동에 있어서도 마일즈 데이비스 자신은 실재로 프리 재즈의 길을 가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을 만든 장본인으로 미국 서부와 동부음악의 큰 흐름을 만든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마일즈 데이비스 음악의 뿌리와 현대 음악에 미치는 그의 영향을 생각해보고 모든 것은 진화한다는 말처럼 재즈 음악이 초기에서 중기, 후기 재즈로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일즈 데이비스라는 중심이 있어왔다는 사실과 지금은 음악 흐름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의 시기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유이 쇼이치, “A History of Jazz”, 삼호출판사 1995
- [2] Frank Alkyer, “Down Beat Hall of Fame Series the Miles Davis Reader” (Downbeat Hall of Fame) 2007
- [3] Ian Carr, “Miles Davis: The Definitive Biography” 2006
- [4] Jack Chambers, “Milestones: The Music And Times Of Miles Davis” 1998
- [5] Miles Davis and Scott Gutterman , “The Art of Miles Davis” (Beaux Arts Series) 1991
- [6] 이주영, “Miles Davis의 앨범, <Birth of The Cool>에서 사용된 Horn Section 편곡 연구” 동덕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8
- [7] Jeremy Yudkin, “Miles Davis, Miles Smiles, and the Invention of Post Bop” 2007
- [8] Steve Lajoie, “Gil Evans and Miles Davis - Historic Collaborations (1957 - 1962)” 2003